

갈릴리의 피와 실로암 망대

(이 글은 2014년 4월 16일 수난기간 중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즈음에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와 참회의 계기를 선사하고 떠난 250명의 생때같은 우리자식들에게 이 글을 바칩니다.)

엿그제 2014년 4월 16일은 세월호 사건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눈물이 바다가 된 날이자, 생때같은 우리자식들을 가슴에 묻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차갑고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 말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그곳에 잠겼더라면, 차라리 우리가 거기에 갇혔더라면, 한결 원통함이 덜했을 텐데 아는지 모르는지 앞서 간 우리자식들은 저 깊은 심연(深淵)에 숨죽인 채, 그렇게 아무 말이 없는 형편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시나브로 차오르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우리자식들은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지금도 생각하면 할수록 그저 하염없는 눈물만이 흐를 따름입니다.

말없는 우리자식들은 다시 되찾아올 수 없다는 치더라도 덩그러니

이 땅위에 외롭게 남겨진 우리부모들은 이제 남은 생을 어찌 살아가야 할까요? 그보다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뜻 모를 재앙을 우리에게 더하셨을까요? 모두가 한결같이 원망스러울 따름입니다. 그 원망스러움에 부모 된 우리의 눈물은 개울이 강이 되어 이제는 점점 바다로 차오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어찌 하겠습니까? 남겨진 우리의 삶 또한 아닌 게 아니라 그도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우리네 남은 인생이 다할 때까지 사랑하는 자식들을 쫓그라든 가슴에 고스란히 묻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때문에 이처럼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용납하셨을까요? 이로부터 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자 계획하셨던 것일까요? 영혼을 팔아서라도 자식들과 우리의 처지를 뒤바꿔 놓을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오늘의 하나님은 어느 때와는 달리 너무도 가혹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고 발생 2일째 되는 아침입니다. 새벽부터 스산한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 음산한 날입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남겨진 우리 모두가 매한가지로 세월호의 슬픔 속에 잠겨있는 비통한 날입니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오늘따라 유난히도 하루 내내 을씨년스럽기만 합니다. 그런들 어찌 세월호의 참담함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마는, 여하튼 오늘 우리 마음의 풍경은 무척 쓸쓸하고 참담할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2014년 4월 18일자 조간신문에서는 세월호 사건에 빗대어 참으로 훈훈하고도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마다 처한 환경과 형편은 제각각이었어도 그들이 보여준 따뜻한

온기로서 사람사랑의 참모습은 실로 몽클하기 한량없었습니다. 크리스천 된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의 흔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스포츠스타와 유명 탤런트 등은 세월호 유가족을 위해 망설임없이 거액의 성금을 쾌척했다고도 하고, 국내 프로야구경기에서는 격한 응원을 일절 중단했다고 하며, 오락성 짙은 TV 프로그램은 유예(猶豫)되고, 온 거리 방방곡곡에 우리자식들을 추모하는 노란리본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지구촌 각지에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하고 슬픔을 나누고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위로와 격려의 손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랑의 흔적들은 그 어디에 모아둘 곳 없이 쌓여 넘쳐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세월호에서 비롯된 비통함과 참담함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미루게 했고, 모든 것을 숙연하게 했으며, 모든 것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싸움도 분쟁도 다툼도 대충대충 그저 그렇게 흘러 지나왔던 우리네 지난날의 회한마저도 다시금 되짚어 보게 했습니다. 모두가 생때같은 우리자식들이 이생에서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라고 보아 또 다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날. 오늘 아침. 놀랍게도 이 같은 회한과 눈물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그 무엇에 눈 하나 깜작하지 않는, 세월호로 인하여 모든 것이 멈춰지고 미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애됨이 없는, 한 떼의 자유로운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필자가 보기에 그들은 스올[음부(陰府), Abode of the Dead, Hades, *Sheol*, ~~1005~~의 강가를 헤매고 있는 옛 뱀 사탄에 사로잡힌

자들로 보였습니다.

그것은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하단 전체를 장식한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교회를 저 교회에게 팔아 넘겼는데, 왜 약속했던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느냐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사실관계랍시고 그간의 경과와 다툼의 핵심이 된 사안과 증거를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정해진 기일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저 교회 및 저 교회대표자에게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여하히 따져 묻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사자 된 저 교회는 보통사람 누구나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우리나라를 대표하기에 충분한 초대형교회였고, 이 교회는 서울 강남 한복판 노른자위 땅에 위치한 또 다른 대형교회였습니다. 그들 기사에 담겨진 호가(呼價)는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었습니다.

조간신문의 위아래 명암은 극명하게 엇갈려 있었습니다. 이 기사가 실린 지면의 상단(上段)에는 밤새도록 담요를 뒤집어 쓴 채 행여나 살아 돌아올까 노심초사 사고현장을 망연자실 바라다보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의 사진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문 전체를 탈탈 털어 어느 기사도 세월호와 관계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이들의 눈과 귀가 세월호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유독 이 기사만큼은 남달랐습니다. 세간의 따가운 시선과 조소(嘲笑)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 나름엔 타인의 시선과 관심을 한 몸에 받으려는 옛 뱀 루시퍼(Lucifer, Old Serpent, Satan, 撒旦)의 날름거리는 혀를 앞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이 참담한 세태와 참혹한 현실을 마주대하며 이를 감싸얹고 위로하기는커녕 보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오로지 그들의 알량한 이해보전에 온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나귀 탄 발람(Balaam)의 후사(後嗣)로 제격인 자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도대체 이 노릇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멈출 수는 없었을까요? 세월호를 지켜보며 모든 것을 숙연히 다시금 되돌아 볼 수는 없었을까요? 심리를 양보하여 정녕 아니 그럴 수 없었다면 세월호 참사에 빗대어 모든 행사를 미루거나 늦추거나 잠시 덮어둘 수는 없었을까요?

2014년 4월 25일, 사고 발생 9일째 되는 아침입니다. 속상하고 가슴 답답한 그날의 참담함과 분노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다시 같은 자리에 이제는 이도저도 아닌 한 교회의 실상이 터 잡고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세월호에 침통해하고 살아 돌아오지 못한 우리자식들의 영정 앞에 피를 토하는 절규가 끊이질 않고 있는 차제에 이제는 한 교회의 회복과 갱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 교회의 목사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또 다시 조간신문의 하단기사로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위논문표절, 수백억이 넘는 호화예배당 건축, 불게 칠한 나무십자가를 신축예배당 공사현장에 꽂아놓고 하늘의 복을 받자며 벌인 땅밟기 캠페인, 횡령과 배임, 사문서 위조, 고소와 맞고소를 이유로 그러기에 세상 앞에 이를 바로 알리고자 그 교회의 목사를 이날 아침 조간신문의 지면을 빌어 고발한다는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어찌 보아야 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싶게 보아야 할까요?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싶게 맞들어 보아야 할까요? 이도 저도 아니면 기사내용에 편승하여 이쪽이든 저쪽이든 함께 참여하여 선한 싸움이랍시고 사생결단을 내야 할까요?

자괴적(自愧的)인 얘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후일 그 어느 때에 지금의 이때를 회상해볼 요량이면 우리에게 세월호 사건은 어찌면 희미한 기억 속에 가물가물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기에 우리 사람에게 이처럼 어쩔 수 없이 주어진 망각도 달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단한 이 세상을 지치며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침몰한 세월호와 같이 이생에서의 우리 삶이 얼마나 무겁고 곤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건에 덧붙여진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보다 정확히는 끝 간 데 없이 패악한 사례들은 적어도 필자에게 있어서는 결코 잊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필자 또한 우리 모두 이 같은 패악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월호에 덧대어진 이처럼의 패악한 모습이 다름 아닌 그간에 세상 앞에 내비춰진 필자 또한 우리 크리스천의 자화상(自畫像)이었기 때문입니다.

각설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세월호 사건과 같은 재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 신앙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기에 이를 지켜보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새기고 또한 지녀야 할까요? 이하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로마의 빌라도[Pontios Pilatos, 재직 26-36. 참고로 빌라도는 유대총독 취임 시 로마의 황제상을 그린 군기를 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거나, 예루살렘 성전의 금고를 유용하기도 하고, 이에 항의하는 민중을 학살하는 등, 로마의 권력을 배경으로 고압적인 반유대정책을 취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재판 시에는 유대교도의 압력에 굴복해서 본의 아니게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빌라도는 사마리아의 민중학살 사건으로 로마에 소환되기에 이르고 끝내 자살했다고 합니다. 일설에 빌라도는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전승도 있는데, 지금의 콥트(Coptic) 교회나 에티오피아(Ethiopia) 교회는 그와 그의 아내를 성인으로 추앙하고 있음이 이를 증합니다]가 유대를 통치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갈릴리(Galilee, 이곳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대부분을 보내신 곳입니다. 산상수훈, 가나의 우물을 비롯한 유명한 사건들이 바로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인근에 산당(山堂)을 세워놓고 로마의 이름 모를 우상을 가져다가 때마다 이곳에서 제사를 치렀습니다(행 17:22-23).

그 제사에서 빌라도는 갈릴리의 유대인 몇몇을 잡아다 죽이고, 그들의 피를 받아 제물에 섞어, 자신이 섬기고 있었던 이름 모를 잡신(雜神)에게 바치고는 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은 제사 때마다 어김없이 이유없는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특히나 유대인의 민족적 최대의 절기이자 그들의 정체성이 담긴 유월절(逾越節, Passover, *Yiddish*, *פסח*) 즈음에는 참상이 극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입장에서 왜 하필이면 갈릴리 유대인의 피를 필요로 했을까요?

필자가 이해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저들 민족의 멸망을 목도하고, 바벨론 포로(Babylon Captivity) 귀환 이후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금 명명백백히 가슴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곧 우상숭배(偶像崇拜)의 행악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가 되었는지를 낱낱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후로 유대인에게 우상숭배는 멸망과 동일하게 취급되었습니다. 이 같은 유대의 민족적(民族的) · 선민적(選民的) 자각의식(自覺意識)을 빌라도는 누구보다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빌라도는 비록 유대가 자신의 예속(隸屬) 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섬기고 있었던 잡신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온 유대를 일거에 산당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곧 그가 생각하기에
혹시나도 모를 유대의 대대적인 폭거(暴舉)와 반란(叛亂)을 염두에 둔 때문
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유대의 식민(植民)을 따로 떼어놓고 그들끼리
만 제사를 행한다는 것은 지배자로서 빌라도 자신의 종교적 안위와
장래를 생각할 때, 잡신은 물론이고 자신 또한 부정(不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같은 빌라도의 생각은 지금의 우리가 보기에
도 그다지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빌라도는 놀랍게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것을
합쳐, 이를 다시 반으로 쪼갠 타협안을 고안해내게 됩니다. 곧 산당이
있었던 갈릴리 유대인의 일부를 죽여 그들의 피를 본래 희생제물에
골고루 섞어 제사에 쓰면 될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빌라도에
게도 그가 섬기고 있었던 잡신에게도 그다지 만족스럽지는 못했겠지
만 그렇다고 못마땅한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를 본 유대의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본장의 기록입니다(눅
13:01). 곧 그들은 자신들과 같은 동족이 무엇 때문에 이 같은 고초를
겪어야만 하는지를 예수님께 캐묻고 있는 것이 본장의 기록입니다. 참고로
당시 유대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사로잡혀 죽임을 당한 사람은 그간에
하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물로 취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비유하기에, 당시 제물로 취해진 사람과 지금 세월호에
몰린 우리자식들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고초를 겪어야만 했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참담한 재앙을 허락하고 계신지가 그들

질문의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이 두어 사람의 질문에 당시 발생한 또 다른 큰 참화(慘禍)를 결부하시면서 그들의 이해를 도우셨습니다. 여기서 큰 참화라고 함은 당시 실로암(Siloam,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에 높다란 망대가 있었는데, 이 망대가 우연치 않게 와르르 무너져 인근에 있었던 18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게 된 사건이 그것이었습니다(눅 13:04).

빌라도의 희생제물 사건이나, 실로암 망대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매한가지의 사건으로 보아, 이 두어 사람은 예수님께 이들 사건의 모든 희생자들이 무슨 이유에서, 어떠한 연고로, 왜 이처럼 아무 이유 없이 희생을 당하여야 하는지를 따지듯 물었습니다. 이를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즉답을 피하시고 다음과 같이 반문하여 이르셨습니다(여기서 세월호 사건은 본문내용에 부합하게 필자가 덧붙인 글귀임을 참고합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눅 13:02)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눅 13:04)

“세월호에서 죽은 사백 칠십 육 명의 사람이 대한민국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으로부터 당시 유대인들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을 통렬히 질타(叱咤)하셨습니다. 곧 모든 희생자들이

남들보다 특별히 죄가 커서 희생되었을 것이라는 당시의 통념(通念)에 추상같은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오히려 희생된 그들보다 남겨진 산 사람의 죄가 더 클 수 있음을 바로 보게 하셨습니다. 나아가 여기에 덧붙여 두신 말씀이 하나 더 있었기로, 이 말씀은 빌라도의 희생제물 사건이나 실로암의 망대 사건이나 지금의 세월호 사건이나 다름없이 적용할 수 있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눅 13:05)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에 담겨진 울골은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접하는 중에 그 뜻을 바로 헤아려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재차 가다듬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해와 달도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재물도 어느 것 무엇 하나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다가 하나님께 되돌아 갈 것입니다.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지치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마치 채무자인 양 대하면서 언감생심 이전에 꾸어준 것을 되받거나 하려는 것처럼 뻔뻔하게도 모든 것을 구하고 채워주시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령 꿈속에서나마 우리가 하나님께 꾸어드린 것이 있었다면 그도 다행일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밀도 끝도 없이 무작정 채워주고 달라는 것 일색입니다. 때로는 목청을 높여가며 고래고래 부르짖기도 하고, 때로는 눈을

뒤집고 몸을 비틀기도 하면서 그렇게 원성 아닌 원성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기가 막히실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천한 종놈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 살려주었더니, 패악무도하게도 되레 주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붓짐을 털어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어 놓으라고 하니 세상천지에 이 같은 패악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필요하고 간절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넉넉하고 모자람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야마는 형국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고 누구를 위한 주인이란 말입니까?

바로보기에, 이러한 죄가 빌라도에게 피를 취하게끔 한 빌미가 되었고, 이러한 욕심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으며, 이러한 패악이 우리자식들을 세월호에 묻게 한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추상같이 일러주신 말씀이 다름 아닌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두의 희생을 일으킨 장본인은 다름 아닌 회개치 아니한 남겨진 우리가 되는 셈입니다. 곧 죄 많은 우리가 그 희생이 있게 한 그야말로 패악무도하기 그지없는 범인인 것입니다. 남겨진 자들의 관영(貫盈)한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아 회개치 않았던 우리의 패악한 죄 때문에 이러한 참담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들 두어 사람에게 말씀하신 답변이자 가르침이었습니다. 빌라도의 만행과 실로암, 그리고 세월호의 참사를 대하면서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처절하게 회개하고 뼈를 도려내는 마음으로

참회하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추상같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는.

갈릴리에서, 실로암에서, 세월호에서,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처참하게 희생된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가슴은 갈래갈래 찢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부모나 유족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흔적을 품은 위대한 사랑의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바로보아 깨닫게 할 수 있는 계기를 선사해 주었으며, 지나 온 우리 삶을 되돌아보아 통렬히 회개할 수 있는, 나아가 다가올 삶을 겸손하고도 신실하게 맞이할 수 있는 꺼지지 않는 등경(燈檠)이 되어 주었다는 시각에서입니다. 골고다의 구름을 지쳐 가신 예수님의 마음이 이 같은 마음이었다고 보아 필자는 앞에서 이를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된 그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 땅위에 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시고 계획하셨던 삶이었다면, 못다 한 생이었으나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남겨진 자들의 표상으로서 우리에게 혈전(血戰)의 공로가 있는 선대(先代)가 되기에 마땅할 것입니다. 짧은 우리 생각과도 같이 그들의 죽음은 그렇게 덧없고 의미없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실로 그 죽음은 장엄하고 엄숙하며 숙연한 것이었습니다.

노파심에 여기서 한 가지 바로잡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 “망하리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그것입니다. 이때의 망하리라는 말씀은 남겨진 그들과 우리가 보기에 말 그대로 망했다라고

하는 외견(外見)에 주안점을 둔 표현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 우리의 이해에 맞게, 우리식대로 이르신 배려의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자들이 회개치 않은 경우에 이르게 될 망함은 곧이곧대로 예수님께서 계획하신바 그대로 스올에 이르는 영원한 죽음일 것입니다.

옛말에 “개똥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다면 모를 일이지만, 크리스천 된 우리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헛되고 헛된 세상의 말이라 치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시편기자의 말대로 모두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참다운 위로와 평안을 찾을 수 없고, 월만한 안식처를 발견할 수 없으며, 찢긴 상흔을 치료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겨진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목적은 바라보기에 저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우리 앞에 예비해 두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고난의 도상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사랑을 다시금 바로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 고난의 끝에서 저 천국을 향한 소망가운데 하나님의 슬하(膝下)에 당당히 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척박한 골고다의 구름을 지쳐 가신 예수님의 발자취 또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다 마치는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즐거운 노래를 불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영광되고 감격적인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

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슥 03:17)

2014년 4월 27일. 사고 발생 11일째 되는 주일아침입니다. 지금 이
시간 국화 한 송이 손에 들고 우리자식들의 영정(影幀)을 마주보며 있습니
다. 참담한 우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두가 한결같이 밝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해맑고 꾸밈없는
씩씩한 얼굴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안아볼 수 없다는 생각에
갈수록 품속이 아리고 시립기만 합니다.

적어도 크리스천의 명패를 두른 사람들이라면, 어느 때나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인 된 우리의 가슴을 찢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디 피지도 못하고 꺾인 세월호에서 희생된 우리자식
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찬가지로 죄인 된 우리의 가슴을 찢고 회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분향소(焚香所) 앞을 지나며 문득 영문도 없이 영정 속에서나마 우리자식
들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모습은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나브로 필자의 머릿속엔 그들이 보고 있는 우리 모습 그대로가 말
그대로의 영정일 것이라는 생각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후로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자식들을 향하여 가슴을 치고 통탄해하며 그들
영정 앞에 향불을 사르고 있었던 것은 모두가 입장 바뀐 허상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회개치 않은 우리가 지금에서야 죽은 것이고, 세월호에
묻힌 우리자식들이 산 셈이라는 결론을 죄 많은 필자의 가슴속에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갈릴리 산당에서 유대인을 잡아 피를 사방에 뿌렸던 빌라도가 꿈속에서나마 지금 이 땅에 다시금 출현하게 되었다면, 그는 누구의 피를 먼저 취하려고 했을까요? 만약에 필자가 빌라도였다면 아마도 세상의 지탄과 조소를 면치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크리스천이 먼저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치솟는 원성과 불만을 덜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앞선 프롤로그에서 크리스천의 사명을 참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02:03-08)

우리의 처절한 회개와 참회로부터 다시는 이런 참사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그간 우리의 씻을 수 없는 강박(剛復)한 죄와 악한 심사를 장막 앞 번제단(燔祭壇)에 남김없이 불사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빌라도의 만행에, 실로암의 망대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월호에서 그렇게 참담하게 죽어간 우리의 앞선 선대와 자식들이 남긴 유훈(遺訓)으로 가슴에 새겨둠과 동시에, 회개와 참회의 마음을 이 지면에 아로새겨 재차 우리자식들의 영정에 바쳐둡니다.